

제작에서 나아가 홍보까지 아우르는

계간 「SAFETY KOREA」

기획·출판·배포 용역 제안발표

제안개요

- 0. 검색 포털에서 [제품안전] 검색 시
 연관검색어에 [제품안전정보센터] 와 [SAFETY KOREA]가 노출되도록 하는 것이 제안 목표
 - 제품안전정보센터와 SAFETY KOREA에 대한 검색량 상승과 인지도 제고
 - 매거진을 핵심 콘텐츠로 해 블로그, 페이스북, 뉴스레터 등 채널에 따라 콘텐츠 커스터마이징해 홍보

NAVER

제품안전



통합검색

뉴스

이미지

블로그

카페

지식iN

동영상

어학사전

더보기

검색옵션

정렬

기간

영역

옵션유지

깨짐

켜짐

상세검색

연관검색어

제품안전정보센터 SAFETY KOREA

제품안전포털 제품안전정보 제품안전의날

신고



제품안전학회 제품안전마크 제품안전표시 제품안전사례 제품안전시스템

품질 환경 품질관리 품질보증 표준 표준화 환경경영 품질경영시스템

품질인증 품질검사

접기

사이트

도움말 | 사이트 신고 | 네이버웹마스터도구

제품안전정보센터 www.facebook.com/pages/제품안전정보센터/581276555339255

제품안전정보센터, 충청북도 음성, 좋아하는 사람 64명, 제품안전센터 페이스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움짤, 카드뉴스,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로 활성화

제안개요

1. 오프라인 계간지 제작에서 나아가 SAFETY KOREA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 운영

- 1-1) 지면의 제약으로 담지 못 했던 사진(B-CUT)과 이야기(Behind Story)를 페이스북 페이지에 포스팅
- 1-2) 지면과 페이스북이 연계되는 계간지 콘텐츠(기사)에는 QR코드를 삽입해 이용자가 QR코드 촬영 시 해당 페이스북 페이지로 바로 이동 가능하게끔 함



FOCUS

밖은 위험해!
한 전기장판
를 부탁해~

1가 연일 지속되고 있다.
이불 날려로 인해 전기장
판이 놓여나는 추세다.
이므로 안전 사고도

제품안전 NEWS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의한 2011년 전기장판 안전사고 접수는 259건인데 비해 2014년은 464건으로 200건 가량 증가했다. 더욱이 2015년과 2016년 2년 동안 접수된 전기장판 관련 안전사고는 1,367건으로, 그 중 61%가 화재 및 과열로 인한 사고이다. 건조한 겨울철에는 작은 불씨라도 자칫하면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전기장판은 사용 전 전열부의 먼지를 제거하고 제품 훼손 이상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열선이 끊어지지 않았는지, 온도조절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전기장판을 사용할 때는 무거운 물체에 놓이거나 접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이 경우 열선이 끊어지거나 파열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전기장판은 안전인증마크(KC마크)가 있는 제품만 사용해야 한다. KC마크가 있다면 안전기준에 부합하며 리콜명령을 받은 제품일 수 있다. 이 경우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나 리콜명령 알림이 오면 즉시 대응해야 한다. 미세한 불꽃으로도 불이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기장판 사용 시 주의

- 접어서 보관하지 않기
- 전기장판을 장시간 놓지 않기
- 자율화상 주의하기
- 콘센트 뽑기
- KC인증마크 확인하기

콘텐츠 기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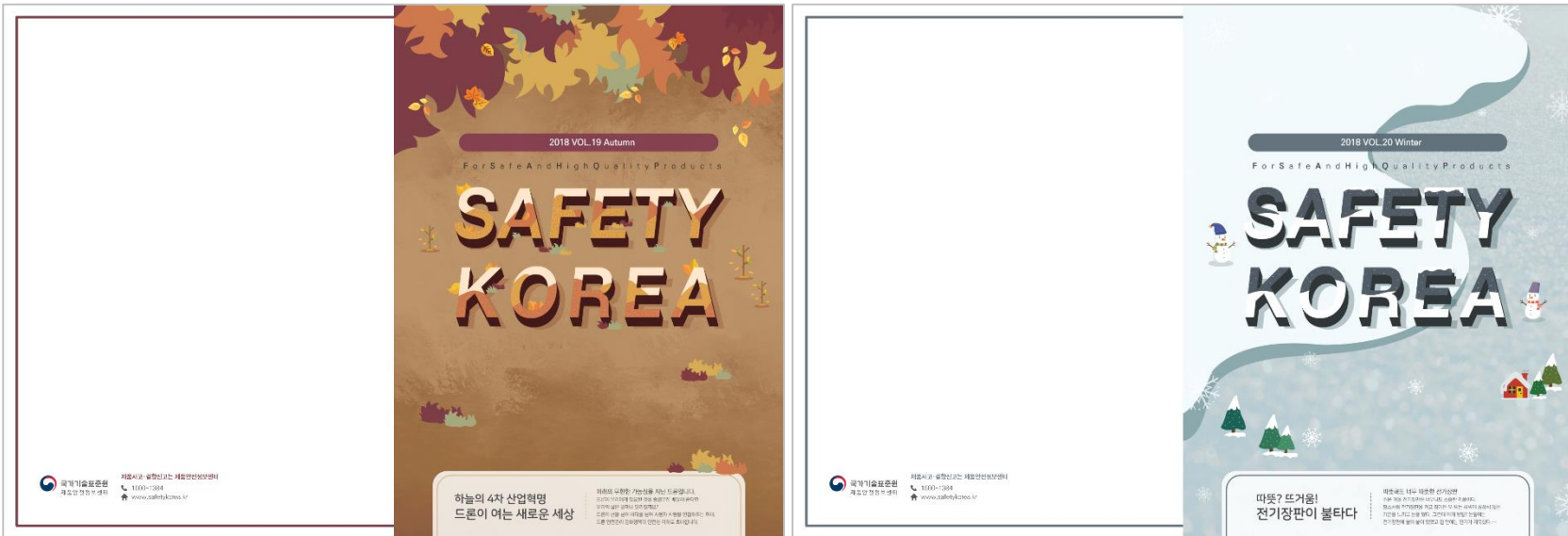
제품안전 관련
콘텐츠 세부 내용

편집부문
분기별 표지 시안①

일러스트를 활용한 독특하고 재미있는 디자인으로 독자의 흥미 극대화



■ 상단 좌에서 우 방향
(봄, 여름, 가을, 겨울)



■ 계절별 어울리는
색감과 일러스트 및
보는 재미를 살린
일러스트 표지 시안

콘텐츠 기획(안)

제품안전 관련
목차 콘텐츠 세부 내용

편집부문
(내지)목차 기획

시장현황, 소비자를 위한 정보, 제품안전 관련 정책으로 나누어 분기별 이슈를 반영한 기사 및 칼럼 연재

2018 VOL.17 SPRING

INTRO

04_2018 기획특집

: 신년맞이 허남용 국가기술표준원 원장 인터뷰

12_봄철 안전 이슈

MARKET FOCUS

14_국내 리콜 INFO

16_글로벌 리콜 INFO

18_리콜 제품 ZOOM IN①

22_리콜 제품 ZOOM IN②

26_리콜 ATTITUDE

: 리콜을 대하는 기업의 자세

CONSUMER FOCUS

36_위해제품 NEWS①

: 스마트폰, 화장실 변기보다 10배 더럽다?

42_위해제품 NEWS②

: 당신의 냉장고는 안전합니까? 저온균 세균에 위험받는 우리집 냉장고

46_제품안전 NEWS

: 마스크만 쓰면 미세먼지 안녕? NO! 마스크 제대로 알고 쓰자!

POLICY FOCUS

48_국내 제품 정책 이슈

52_전문가 SAY①

: 전안법과 KC인증, 대체 뭐길래?

54_전문가 SAY②

: 4차 산업혁명 시대, 다가오는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58_독자와 함께하는 SAFETY KOREA

2018 VOL.18 SUMMER

INTRO

04_2018 기획특집

: KPSA한국제품안전협회 이만찬 상근부회장 인터뷰

12_여름철 안전 이슈

MARKET FOCUS

14_국내 리콜 INFO

16_글로벌 리콜 INFO

18_리콜 제품 ZOOM IN①

22_리콜 제품 ZOOM IN②

26_리콜 ATTITUDE

: 동아시아 리콜 사례와 대응 방법 비교 분석

CONSUMER FOCUS

30_위해제품 NEWS①

: 고무풍선 입으로 불지 마세요, 시중 판매 제품 기준치 초과

36_위해제품 NEWS②

: 심신 안정을 위해 사용하는 향초의 두 얼굴

42_제품안전 NEWS①

: 신나는 여름철, 당신의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현명한 용품 선택법과 관리법

44_제품안전 NEWS②

: 여름을 더욱 시원하게 보내기 위한 올바른 냉방기기 안전수칙

46_안전을 위한 생활 속 작은 실천!

POLICY FOCUS

48_글로벌 제품 정책 이슈

52_국내 제품 정책 이슈

54_2018 제품안전혁신 포럼

56_전문가 SAY①

: 제품안전과 기업의 책임

58_전문가 SAY②

: 제품 안전 사각지대, 정부의 움직임이 필요하다!

60_독자와 함께하는 SAFETY KOREA

INTRO

- 계간지의 신뢰성과 전문성 증명을 위한 칼럼 집필진 인터뷰

- 계절별 발생하는 이슈를 반영

MARKET FOCUS

- 통계분석, 제품정보,, 관련 기사 또는 칼럼을 통해 다각적 시야에서 리콜에 대해 설명

CONSUMER FOCUS

-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계절별 주요 제품을 소재로 기사를 작성하여 독자의 관심 및 흥미를 유발

POLICY FOCUS

- 국내외 제품안전 관련 행사 및 이슈 전달을 통해 국가기술표준원의 활동에 대해 알림

- 전문가 칼럼을 통한 계간지 전문성 확보

- 독자가 계간지를 끝까지 보게 하기 위해 계간지의 마지막 장에 상품을 증정하는 독자 의견 수렴 페이지를 삽입

콘텐츠 기획(안)

제품안전 관련
목차 콘텐츠 세부 내용

편집부문
(내지)목차 기획

시장현황, 소비자를 위한 정보, 제품안전 관련 정책으로 나누어 분기별 이슈를 반영한 기사 및 칼럼 연재

2018 VOL.19 AUTUMN

INTRO

04_2018 기획특집
: 2017 제품안전혁신 포럼 위원 운영위원장 지중용 중앙대 교수 인터뷰
12_가을철 안전 이슈

MARKET FOCUS

14_국내 리콜 INFO
16_글로벌 리콜 INFO
18_리콜 제품 ZOOM IN①
22_리콜 제품 ZOOM IN②
26_리콜 ATTITUDE
: 생활 속 제품 결함을 발견했을 때,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CONSUMER FOCUS

30_위해제품 NEWS①
: 가습기 살균제 유해 성분에 위협당하는 반려동물들
36_위해제품 NEWS②
: 세상에 좋은 담배는 없다.
42_제품안전 NEWS①
: 추석 황금연휴, 전기 안전 5계명
44_제품안전 NEWS②
: 가을 산행을 책임질 아웃도어 장비, 안전 인증 제품 맞나요?
46_ 안전을 위한 생활 속 작은 실천!

POLICY FOCUS

48_글로벌 제품 정책 이슈
52_국내 제품 정책 이슈
54_제7차 아시아 소비자정책 포럼
56_전문가 SAY①
: 안전을 책임지는 만큼 기업의 이미지도 올라간다.
58_전문가 SAY②
: 제품안전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필요하다.
60_독자와 함께하는 SAFETY KOREA

2018 VOL.20 WINTER

INTRO

04_2018 기획특집
: KPS사단법인 한국제품안전학회 임원진과 제품안전에 대해 논하다.
12_겨울철 안전 이슈

MARKET FOCUS

14_국내 리콜 INFO
16_글로벌 리콜 INFO
18_리콜 제품 ZOOM IN①
22_리콜 제품 ZOOM IN②
26_리콜 ATTITUDE
: 리콜을 낮추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

CONSUMER FOCUS

30_위해제품 NEWS①
: 우리 아이 장난감, 아무거나 사주실 건가요?
36_위해제품 NEWS②
: 표백제 부작용 걱정 NO! 천연세제 4종 활용법
42_제품안전 NEWS①
: 밀폐된 겨울, 세균 가득한 가습기가 공기를 오염시킨다!
44_ 제품안전 NEWS②
: 이불 밖은 위험해! 안전한 전기장판 한파를 부탁해~
46_ 안전을 위한 생활 속 작은 실천!

POLICY FOCUS

48_글로벌 제품 정책 이슈
52_국내 제품 정책 이슈
54_2018 제품안전혁신 포럼
56_전문가 SAY①
: 제조물 책임법? 제조업자와 소비자 모두 알아둬야할 지식
58_전문가 SAY②
: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
60_독자와 함께하는 SAFETY KOREA

- INTRO
 - 계간지의 신뢰성과 전문성 증명을 위한 칼럼 집필진 인터뷰
 - 계절별 발생하는 이슈를 반영
- MARKET FOCUS
 - 통계분석, 제품정보,, 관련 기사 또는 칼럼을 통해 다각적 시야에서 리콜에 대해 설명
- CONSUMER FOCUS
 -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계절별 주요 제품을 소재로 기사를 작성하여 독자의 관심 및 흥미를 유발
- POLICY FOCUS
 - 국내외 제품안전 관련 행사 및 이슈 전달을 통해 국가기술표준원의 활동에 대해 알림
 - 전문가 칼럼을 통한 계간지 전문성 확보
 - 독자가 계간지를 끝까지 보게 하기 위해 계간지의 마지막 장에 상품을 증정하는 독자 의견 수렴 페이지를 삽입

콘텐츠 기획(안)

제품안전 관련
목차 콘텐츠 세부 내용

편집부문
(내지)목차 시안

분기별 컨셉에 맞는 목차 내지 구성



For Safe And High Quality Products

SAFETY KOREA CONTENTS



발행호
2018년 봄호 통권 제 17호
(발간등록번호: 00-000000-000000-00)

발행처
충청북도 음성군 영동면 아수로 93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과
TEL. 043-670-6439

발행인
허남용 국가기술표준원 원장

편집·디자인·제작
000000000000000

INTRO

- 00 2018 기획특집
신년맞이 허남용 국가기술표준원장 인터뷰
- 00 불철 안전 이슈

MARKET FOCUS

- 00 국내 리콜 INFO
- 00 글로벌 리콜 INFO
- 00 리콜 제품 ZOOM IN ①
- 00 리콜 제품 ZOOM IN ②
- 00 리콜 ATTITUDE
리콜을 대하는 기업의 자세

CONSUMER FOCUS

- 00 위해제품 NEWS ①
스마트폰, 화장품 번거보다 10배 더럽다?
- 00 위해제품 NEWS ②
당신의 냉장고는 안전합니까?
저온균 세균에 위협받는 우리집 냉장고
- 00 제품안전 NEWS
마스크만 쓰면 미세먼지 안녕?
NO! 마스크 제대로 알고 쓰자

POLICY FOCUS

- 00 국내 제품 정책 이슈
- 00 전문가 SAY ①
정안법과 KC인증, 대체 뭐길래?
- 00 전문가 SAY ②
4차 산업혁명 시대,
다가오는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00 독자와 함께하는 SAFETY KOREA

00 SAFETY KOREA 2018 SPRING
SAFETY KOREA 2018 SPRING 00

SAFETY KOREA 봄호 목차 예시

SAFETY KOREA 목차 위부터 여름, 가을, 겨울호 예시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삽화, 가독성을 높이는 레이아웃

CONSUMER FOCUS

이불 밖은 위험해!

안전한 전기장판 한파를 부탁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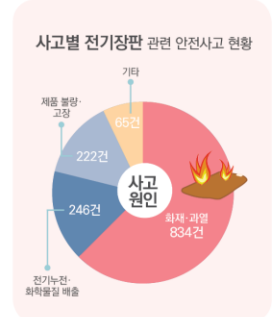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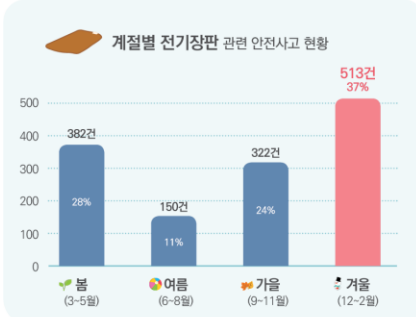
올해도 북극 한파가 연일 지속되고 있다. 매년 추워지는 겨울 날씨로 인해 전기장판을 사용하는 가정이 늘어나는 추세다. 동시에 전기장판으로 인한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이불 밖은 위험해~ 따뜻하게 쇼요야~

제품안전 NEWS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의하면 2011년 전기장판 안전사고 접수는 259건인데 비해 2014년은 464건으로 200건 가량 증가했다. 더욱이 2015년과 2016년 2년 동안 접수된 전기장판 관련 안전사고는 1,367건으로, 그 중 61%가 화재 및 과열로 인한 사고이다. 건조한 겨울철에는 작은 불씨라도 자칫하면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특히 전기장판은 사용 전 전열부의 먼지를 제거하고 제품 훼손·이상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열선이 끊어지지 않았는지, 온도조절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015~2016년 기준 / 행정안전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전기장판을 사용할 때는 무거운 물체에 눌리거나 접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이 경우 열선이 끊어지거나 피복이 벗겨져 합선이 일어날 수 있다. 같은 이유로 전기장판을 보관할 때도 접지 않고 말아서 보관해야 한다. 또한 리텍스나 두꺼운 이불과 함께 사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보온성이 좋은 리텍스 재질의 침구류는 열축적율이 높아 장시간 전기장판을 사용하면 화재 위험이 있다. 전기장판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꼭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 전선이나 콘센트 주변에 먼지나 화기 물품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미세한 불꽃으로도 불이 붙어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내가 사용하는 전기장판이 정말 안전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전기매트 같은 전기용품은 안전인증마크(KC마크)가 있는 제품만 사용해야 한다. KC마크가 있더라도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리콜명령을 받은 제품일 수 있다. 이 경우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나 리콜제품 알리미 모바일 앱을 통해 '리콜명령'을 받은 제품이 아닌지도 확인해야 한다.

전기장판 사용 시 주의!

- 접어서 보관하지 않기
- 전기장판을 장시간 들어 놓지 않기
- 자온화상 주의하기
- 콘센트 뽑기
- KC인증마크 확인하기

- 주제와 연관된 일러스트 삽화 제작
- 되도록 자체 제작하여 저작권에 문제되지 않는 콘텐츠 유지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삽화, 가독성을 높이는 레이아웃

POLICY FOCUS

전안법과 KC인증, 대체 뭐길래?

작년 12월 29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대부분 '전안법'이라고 부르는 이 법안은 작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결국, 국회는 1년의 유예기간 동안 관련 규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그렇게 1년이 지나 전안법 시행일이 다가오자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전안법 폐지'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한 달 만에 참여자 20만 명을 돌파하며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이에 이번 개정에서 국회는 법 시행을 다시 6개월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KC 인증 고지와 의무 비치제도 완화와 관련된 세부 내용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대체 KC인증과 전안법이 대체 뭐길래 이렇게 난리가 난 걸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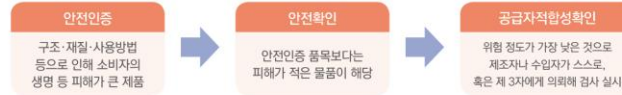
전문가 SAY①

KC인증마크

KC마크는 지식경제부·환경부·노동부·방송통신위원회·소방재청 등 5개 부처에서 발행하던 13개 법정 인증마크를 하나로 통합한 국가통합인증마크(Korea Certificate Mark)를 뜻한다. 과거에는 인증마크가 발급기관마다 달라 중복 인증을 받아야 하거나, 해외거래 시 상호 인증이 불가능 한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2009년 7월부터 지경부와 노동부의 10개 인증마크를 통합하여 KC마크를 출범했다. 결국, KC인증은 안전·환경·보건·품질 등 제품이 정해진 평가기준을 만족했고, 판매 및 사용이 가능하다는 걸 보증해주는 것이다.



[KC인증 안전기준 준수 단계]



KC인증은 제품 위해 수준에 따라 세 단계로 나뉜다. 이를 안전기준 준수 단계라고 한다. 첫 번째 '안전인증'은 구조·재질·사용방법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나 재산상 피해, 자연환경 훼손 우려가 큰 제품이다. 안전인증대상 제품의 경우 안전인증기관이 직접 제품검사 및 심사 후 인증서를 발급해준다. 발급 이후로도 정기적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 두 번째 '안전확인'은 안전인증 품목보다는 피해가 적은 물품이 해당한다. 이 경우 공점심사와 인증 발급 이후 정기검사는 생략할 수 있다. 마지막 '공급자적합성확인'은 위험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제조자나 수입자가 스스로, 혹은 제 3자에게 의뢰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면 된다. 검사 후 관련 서류는 최종 제조일로부터 5년간 비치해야 한다.

기존에는 전기용품과 어린이용품 중 안전인증과 안전확인 품목만 KC인증을 의무로 받아야 했다. 그러나 전안법이 시행되면 그 외 의류, 신발 등 39종의 생활용품의 제조·수입·판매·구매대행자들까지 KC인증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KC인증을 받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다. 대기업이면 몰라도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물력'으로 이어질 정도로 부담스럽다. 또한, KC인증 비용만큼의 류·잡화 등 생활용품의 가격이 폭등해 소비자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KC마크 인증을 받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한 특례조항과 함께 안전기준 준수 단계를 기존 안전관리대상제품 관리체계에 새롭게 추가했다. 더불어 기존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비 안전기준을 준수할 경우 시험과 서류와 의무도 면제해준다. 그러나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최종 판매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은 개정되지 않은 상태다. 그 때문에 소상공인의 불안감도 여전하다.

전안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한편 전안법 시행으로 소비자가 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사용 가능하다는 점에도 존재한다. 특히 생활용품 품질관리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사안이다. 의무만 해도 화학물질이 없는 옷은 없다는 말이 있다. 최근에는 정밀 성인 의류에서 포름알데히드 등 3종에 대한 인체 유해성 분석이 80~90%나 된다는 조사 결과 나왔다. 포름알데히드는 미국 보건부가 공식 인정할 발암물질이다. 이 외에도 섬유 염색에 사용되는 잠재적인 인체 발암물질 퀴놀린, 의복에 자외선 차단을 추가하는 벤조티아졸 및 벤조 트리아졸 등 각종 화학물질이 의복 제작에 사용되고 있다.

전안법 시행까지 남은 6개월, 국회의 세부 내용을 조율하기까지 남은 시간이다. 전안법 시행으로 얻을 수 있는 소비자의 안전, 전안법 시행으로 위태로워지는 중소기업의 생존, 어느 것 하나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그리고 포기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가 납득하고 따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국회의 주요 과제일 것이다.



■ 무료 이미지
사용 시에도
저작권 관련
검수 후 제작

콘텐츠 기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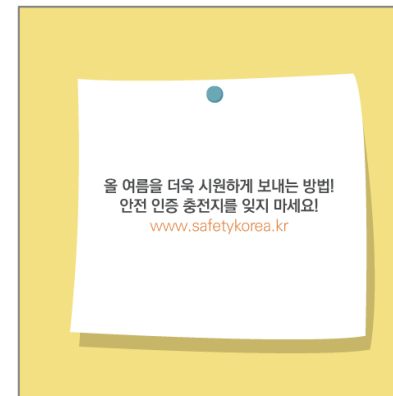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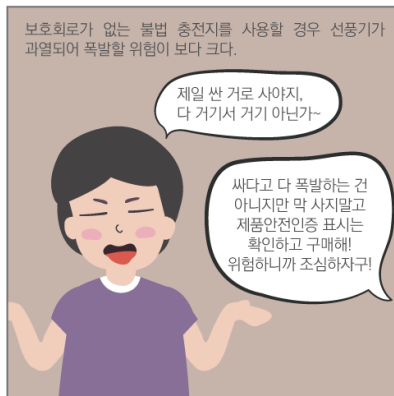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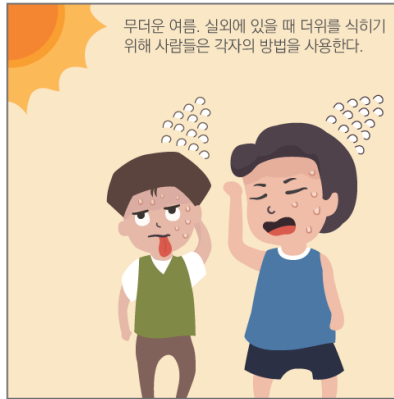
제품안전 관련
콘텐츠 세부 내용

편집부문
만화 및 일러스트 제작

분기별 이슈에 맞는 웹툰 소재 기획 쉽고 재미있는 스토리 및 캐릭터 일러스트 제작

주제 예시: 휴대용 선풍기 편

- 휴대용 선풍기 제품안전인증 마크 주제
- 여름호 웹툰 (계절에 맞는 웹툰 소재 기획)
- 자체적인 캐릭터 개발, 제작 가능한 전문 인력 보유



그런 이유입니다.

여름철 휴대용 선풍기 안전한가요?

여름철 무더운 날씨에 실외에 있을 때 더위를 식히기 위해 사람들은 각자의 방법을 사용한다.

최근 뉴스에서는 파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안전성 검증을 제대로 받지 않은 휴대용 선풍기가 폭발해 13명의 학생이 다친 사건이 보도 됐다.

대중적인 휴대용 선풍기. 곳곳에서 빠른 속도로 다양한 디자인, 다양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과연 안심할 수 있을까? 안전할까?

무더운 여름, 실외에 있을 때 더위를 식히기 위해 사람들은 각자의 방법을 사용한다.

근래에는 길거리에서 휴대용 선풍기를 들고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봤을 것이다. 무더위 여름 필수품이 되어버린 휴대용 선풍기

대중적인 휴대용 선풍기. 곳곳에서 빠른 속도로 다양한 디자인, 다양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과연 안심할 수 있을까? 안전할까?

KC안전인증마크가 표시 되어 있는 제품은 인체에 무해한 안전한 제품으로 제품을 구매할 때 항상 확인해주어야 한다.

특히, 폭발사고에 노출이 되어 있는 충전식 휴대용 선풍기는 모터를 포함하고 있는 본체와 충전지 모두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보호회호가 없는 불법 충전지를 사용할 경우 선풍기가 과열되어 폭발할 위험이 보다 크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휴대용 선풍기 대부분 제조사가 불명명하다. 구입할 때는 꼭 보증기간, 사용후기, A/S정보 등 꼼꼼히 살펴보고 확인해보자!

올 여름을 더욱 시원하게 보내는 방법! 안전 인증 충전지를 잊지 마세요! www.safetykorea.kr

콘텐츠 기획(안)

제품안전 관련
콘텐츠 세부 내용

편집부문
인포그래픽 제작

원본 데이터를 그대로 표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인포그래픽 등으로 시각화 진행

I 개요 및 주요이슈

1. 일반 현황

IT·가전제품을 사용하는 데 접근성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 및 고령자는 '13년 860만명(총인구대비 17.3%)으로 추산되며 평균수명의 연장과 함께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등록 장애인 수가 대폭 증가되고 있다.

'13년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수는 250만명으로 총 인구의 5.2% 차지하고 장애인 등록 회피인구 포함시 750만명(8%)으로 추산되며, 장애유형은 지체(52.3%), 청각(10.9%), 시각(10.1%), 뇌병변(7.2%) 순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

[표 1] 등록장애인 현황

구분	'02	'04	'06	'08	'10	'13
등록장애인수(천명)	1,294	1,611	1,967	2,247	2,517	2,501
장애인구비율(%)	2.7	3.3	4.0	4.5	5.1	5.0

출처 :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 2014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609만명으로 총 인구의 12.2%를 차지하며 고령화 추세는 '00년 7.2%(고령화사회)에서 '20년 15.7%(고령사회)로 '30년 24.4%(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장애인·고령자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들의 인간다운 삶 보장을 위한 정부차원의 다각적인 정책 뿐만 아니라 사회적 여건 조성 필요하다.

[표 2] 고령화 추이 및 전망

구분	'06	'07	'10	'13	'20	'30
노인인구(만명)	459	481	536	609	809	12,691
고령화율(%)	9.5	9.9	11.0	12.2	15.7	2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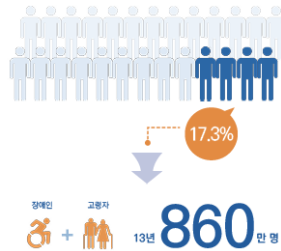
출처 :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2014)

개요 및 주요이슈

일반 현황

IT·가전제품을 사용하는 데 접근성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 및 고령자는 '13년 860만명(총인구대비 17.3%)으로 추산되며 평균수명의 연장과 함께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등록 장애인 수가 대폭 증가되고 있다.

'13년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수는 250만명으로 총 인구의 5.2% 차지하고 장애인 등록 회피인구 포함시 750만명(8%)으로 추산되며, 장애유형은 지체(52.3%), 청각(10.9%), 시각(10.1%), 뇌병변(7.2%) 순이다



등록장애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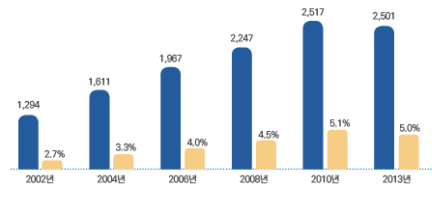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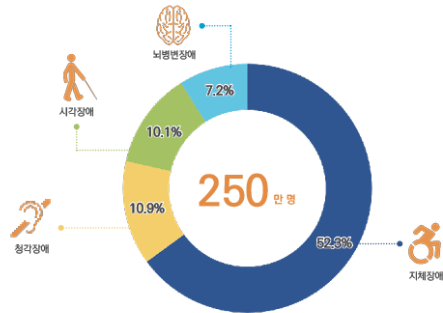
등록장애인수 (천명)



장애인구비율 (%)



장애유형



고령화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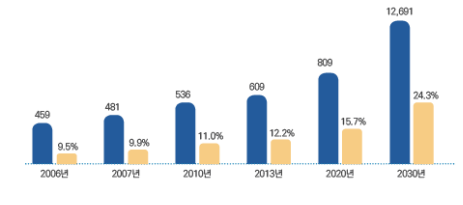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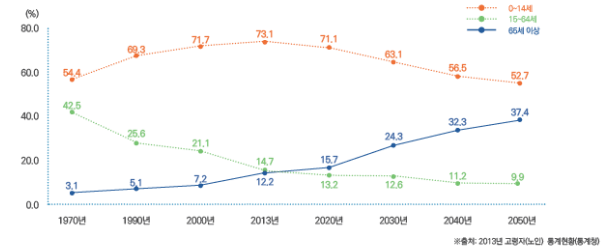
노년인구 (만명)



고령화율 (%)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609만명으로 총 인구의 12.2%를 차지하며 고령화 추세는 '00년 7.2%(고령화사회)에서 '20년 15.7%(고령사회)로 '30년 24.4%(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장애인·고령자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들의 인간다운 삶 보장을 위한 정부차원의 다각적인 정책 뿐만 아니라 사회적 여건 조성 필요하다.



접근성 시장은 장애인·고령자 전용제품(보청기, 보조기, 휠체어 등)에서 융합제품 시장으로 확대 중으로 세계시장은 장애인 전용제품을 중심으로 592억불('11년) 규모이나, 우리나라는 보청기, 보조기, 휠체어 등 4대 제품시장이 727억원 규모('09년), IT·전자제품을 포함한 생산규모는 68조원 이상('12년) 추정된다



콘텐츠 기획(안)

■ 제품안전 관련
콘텐츠 세부 내용

편집부문
편집 가이드

표지, 내지, 목차 등 구성 내 말머리 기호/글꼴/폰트 크기 등 통일

시안	표지	내용
1		캡션 카피1/ 2018 VOL.17 Spring : KoPub돋움체B14pt
		캡션 카피2 : KoPub돋움체B 13pt
		헤드카피 safety korea : (부산바다체) 이미지작업
		하단 이슈 제목: 나눔스퀘어라운드B 20pt
		하단 설명: KoPub돋움체L 8pt

2		캡션 카피1/ 2018 VOL.17 Spring : KoPub돋움체B13pt
		캡션 카피2 : KoPub돋움체L 14pt
		헤드카피 safety korea : KoPub돋움체B, L 57pt
		하단 이슈 제목: KoPub돋움체B 21pt
		하단 설명: KoPub돋움체L 9pt

시안	목차
1	

내용	캡션 카피1(좌, 상단) : 나눔스퀘어라운드B 10pt	
	헤드카피 safety korea : 나눔스퀘어라운드EB, R 61pt	
	바디카피 CONTENTS : 나눔스퀘어라운드EB 31pt	
	목차 대제목: KoPub돋움체B 19pt	
		목차 소제목: KoPub돋움체B 12pt

시안	내지	내용
1		좌, 상단 목차 / CONSUMER FOCUS : KoPub돋움체B 11pt
		헤드카피 '이불 밖은 위험해!' : KoPub돋움체B 47pt
		리드카피 '안전한 전기장판~' : KoPub돋움체M 33pt
		본문 내용 : KoPub돋움체L 10pt

구분	내용	구분	내용
판형 사이즈	변형 국배판 220*300mm	부수	1,300부
재질	표지: 몽블랑 160g 내지: 몽블랑 100g	페이지수 (내지)	약 50페이지
컬러	표지: 양면 칼라 4도 내지: 양면 칼라 4도	제본	무선제본

콘텐츠 기획(안)

제품안전 관련
콘텐츠 세부 내용

온라인 콘텐츠
뉴스레터

분기별 뉴스레터 제작_각 계간지 주요 이슈들 요약한 뉴스레터로 메일 수신 독자의 흥미유발하는 시각적 요소 첨부

봄 뉴스레터

여름 뉴스레터

가을 뉴스레터

겨울 뉴스레터

안전한 제품 정보 제공 한국인

SAFETY KOREA VOL. 17 2018년 SPRING **뉴스레터**
제품안전정보센터

제품안전관련성능평가
결과 공개! 발간!
Safety Korea

"안전한 스마트폰이 만드는 안전한 세상"

안전한 스마트폰이란 어떤 것을 말할까요?
미용을 나누는 세상, 유희를 나누는 세상,
행복을 나누는 세상을 이끄는 스마트폰이 안전할수록 좋겠습니다.
스마트폰은 안전성과 강해성제로 안전한 스마트폰이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듭니다.

"보조배터리 위험"

세종 스타벅스점 보조배터리 폭발 위험에 대해
제품안전 관련 소비자 안전 관련
보조배터리 폭발 위험에 대해
그런데...
www.safetykorea.kr/news/publications

"유모차에 무슨 일이?"

최근 유모차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안전 유모차"는 소비자 안전 관련
유모차 안전 관련 소비자 안전 관련
유모차 안전 관련 소비자 안전 관련
www.safetykorea.kr/news/publications

안전한 제품 정보 제공 한국인

SAFETY KOREA VOL. 18 2018년 SUMMER **뉴스레터**
제품안전정보센터

제품안전관련성능평가
결과 공개! 발간!
Safety Korea

"안전한 휴대용 선풍기 여름을 부탁해"

폭염이 여름, 출몰을 증가시키는
내 손에서 휴대용 선풍기를 꺼내보는
이제 안전이 안전을 지키는 선풍기를 사용하세요.
휴대용 선풍기 안전성과 강해성제로 안전한 휴대용 선풍기
가만 할 사면에도 안전한 선풍기를 부탁해~>

"불안한 고대기 전원버튼"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전원버튼
나이가 지긋한 소비자 안전 관련 소비자 안전 관련
www.safetykorea.kr/news/publications

"습기로 변한 배재기"

습기로 변한 배재기 안전 관련 소비자 안전 관련
www.safetykorea.kr/news/publications

안전한 제품 정보 제공 한국인

SAFETY KOREA VOL. 19 2018년 AUTUMN **뉴스레터**
제품안전정보센터

제품안전관련성능평가
결과 공개! 발간!
Safety Korea

"하늘의 4차 산업혁명 드론이 여는 새로운 세상"

드론의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드론입니다.
드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는데
우리의 삶에 얼마나 유용할까요?
드론이 삶을 넘어 배치를 넘어 생활의 새로운 분야를 여는
드론 안전성과 강해성제로 안전한 드론을 부탁해~>

"계말이 아슬아슬 붙은 세탁기"

계말이 아슬아슬 붙은 세탁기 안전 관련 소비자 안전 관련
www.safetykorea.kr/news/publications

"위험천만 저질로 넘어진 서랍장"

신발이 떨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 넘어진 서랍장
위험천만 넘어진 서랍장 안전 관련 소비자 안전 관련
www.safetykorea.kr/news/publications

안전한 제품 정보 제공 한국인

SAFETY KOREA VOL. 20 2018년 WINTER **뉴스레터**
제품안전정보센터

제품안전관련성능평가
결과 공개! 발간!
Safety Korea

"추운 겨울, 따뜻하게 지내보려다 화재사고?"

추운 겨울, 따뜻하게 지내려 하면
전기장판, 손난로 등 겨울철 제품으로 인한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싶으세요? 겨울철 제품 안전 관련 소비자 안전 관련
www.safetykorea.kr/news/publications

"일회용 기저귀의 빈틈"

최근 일회용 기저귀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일회용 기저귀 안전 관련 소비자 안전 관련
www.safetykorea.kr/news/publications

"반비 손잡이, 과연 안전한가?"

최근 손잡이 안전 관련 소비자 안전 관련
www.safetykorea.kr/news/publications

콘텐츠 기획(안)

제품안전 관련
콘텐츠 세부 내용

온라인 콘텐츠
페이스북 페이지 개설

SAFETY KOREA 의 계간지 컨셉 홍보 및 정체성 확립 독자 맞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전용 페이스북 페이지 개설

기존 제품안전정보센터 페이스북 페이지



SAFETY KOREA 전용 페이스북 페이지 개설



■ 기존의 제품안전정보센터 페이스북 페이지에 SAFETY KOREA 관련 게시물 업로드 시, SAFETY KOREA의 정보와 기존 정보들이 섞여 **독자에게 혼란 가중**

→ SAFETY KOREA만의 정체성 확립 및 독자 맞춤 정보 제공을 위한 전용 페이지 개설

■ 제품안전정보센터
페이스북 페이지와 별개.

■ SAFETY KOREA 계간지
페이스북 페이지 개설.

■ 지속적인 구독을 유도하는
집중 홍보, 계간지 관련 홍보,
이벤트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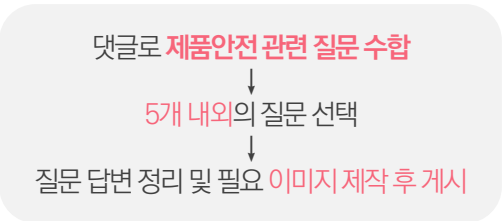
콘텐츠 기획(안)

제품안전 관련
콘텐츠 세부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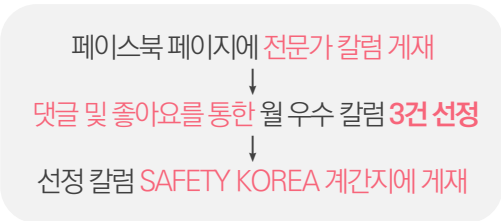
온라인 콘텐츠
페이스북 페이지 운영방안

주 3회 카드뉴스 게시 및 계간지 발간 시 온라인 이벤트를 통한 홍보 게시물 업로드 뿐만 아니라 댓글 및 메시지 관리를 통한 독자와의 소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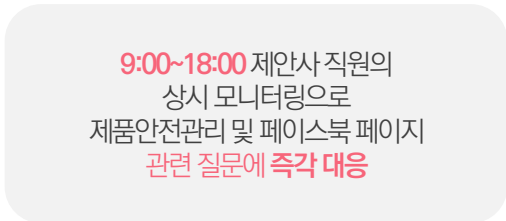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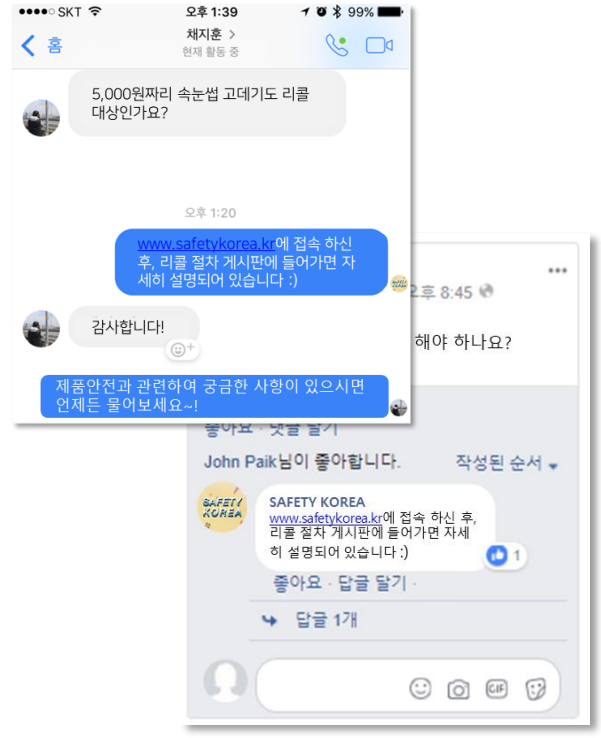
제품안전 관련 질의응답 (월1회)



월별 칼럼 게시 (월1회)



댓글 및 메시지 관리 (상시)



콘텐츠 기획(안)

제품안전 관련
콘텐츠 세부 내용

온라인 콘텐츠
제품안전 주의 카드뉴스

기존 '제품안전정보센터' 페이스북 게시글은 **보도자료 캡처 형식**으로만 기재
→ 정보 전문을 전달하는 것은 좋으나 가독성이 떨어지고 읽기 힘든 이미지

기존 제품안전정보센터 페이스북 페이지



- 제품안전정보센터 페이스북 페이지의 약 25개의 게시글 모두 이와 같은 형식의 게시글.
- 독자와 소통하는 커뮤니티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콘텐츠 기획(안)

제품안전 관련
콘텐츠 세부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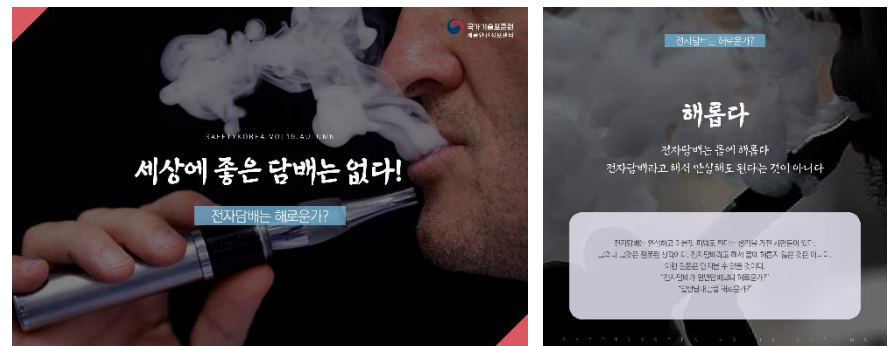
온라인 콘텐츠
제품안전 주의 카드뉴스

제품안전 주의를 환기시키는 캠페인성 카드뉴스 SAFETY KOREA 페이스북 페이지에 주3회 업로드 및 기사 원본 링크 게재

SAFETY KOREA 페이스북에 업로드



- 계간지의 내용 중 또는 새로운 콘텐츠로 소비자의 제품안전 주의를 환기시키는 캠페인성 카드뉴스 제작 및 업로드
- 간단명료하고 짧은 시간에 습득할 수 있도록 제작
- 많은 양의 글보다 핵심 및 요약글로 제작 후 첨부내용은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링크를 같이 업로드함.



콘텐츠 기획(안)

페이스북 콘텐츠
홍보 방안 (타겟 광고)

페이스북 콘텐츠
홍보 방안

일반 콘텐츠는 정보성으로 진행하더라도 **광고 진행 시에는 광고 설정에
맞도록 콘텐츠 재제작을 통해 광고 효율 극대화**

* 제안사 콘텐츠 시안(정보성)



* 광고 설정에 맞춘 콘텐츠 시안(광고 예시)

Sponsored 광고 만들기

SAFETY KOREA(세이프티 코리아)
<http://www.safetykorea.kr>

밀폐된 겨울, 세균 가득한 가습기가 공기를 오염시킨다고 합니다!
제품안전 정보가 가득한, 세이프티코리아에서 더 알아볼까요?

* 월별 콘텐츠 업로드에 따른 광고 대상 예시

월	키워드	내용	광고 대상
2월	설날	즐거운 명절을 보내기 위한 안전한 조리기구	주부, 30대~
3월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을 아시나요??	2-30대, 개발자
10월	전자담배	전자 담배는 몸에 안 해롭나요?	청소년, 20대

콘텐츠 기획(안)

제품안전 관련
콘텐츠 세부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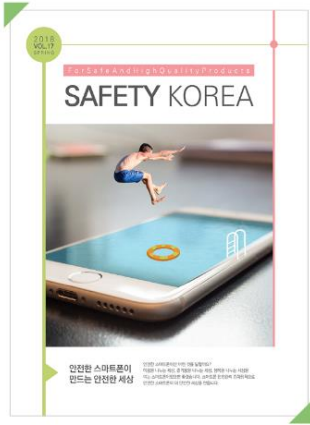
온라인 콘텐츠
홍보 이벤트

계간지 발간 시 e-book 캡처 이벤트를 통해 SAFETY KOREA 홍보 및 독자의 e-book 열람 유도

EVENT

「SAFETY KOREA 17호」 읽고 상품 받자

~18. 6. 15(금) 까지



추첨을 통해 5분께 문화상품권 1만원권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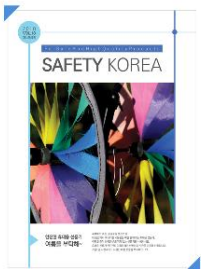
- Step1 상단의 링크를 눌러 「SAFETY KOREA 17호(봄)」로 이동!
- Step2 「안전한 신학기 용품」 페이지를 캡처 후 본인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린다!
- Step3 이 게시물의 '참여 완료' 댓글을 달아주면 이벤트 참여 완료!

- SAFETY KOREA 계간지와 연계된 이벤트 진행
- 이벤트 방법
 - 상단의 링크를 눌러 'SAFETY KOREA 17호(봄)' 링크로 이동한다.
 - 「안전한 신학기 용품」 페이지를 캡처 후 본인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린다.
 - 게시 후 이 게시물에 '참여완료' 댓글을 달아주면 이벤트 참여 완료!
- 이벤트 상품
 - 문화상품권 1만원권 5명

EVENT

「SAFETY KOREA 18호」 읽고 상품 받자

~18. 9. 14(금) 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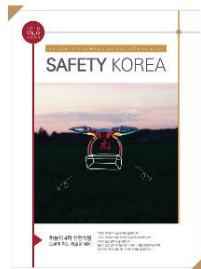
추첨을 통해 5분께 문화상품권 1만원권을 드립니다!

- Step1 상단의 링크를 눌러 「SAFETY KOREA 18호(여름)」로 이동!
- Step2 「산도 나뭇대장 선명하게!」 페이지를 캡처 후 본인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린다!
- Step3 이 게시물에 '참여 완료' 댓글을 달아주면 이벤트 참여 완료!

EVENT

「SAFETY KOREA 19호」 읽고 상품 받자

~18. 12. 7(금) 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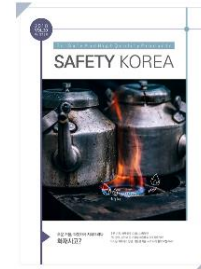
추첨을 통해 5분께 문화상품권 1만원권을 드립니다!

- Step1 상단의 링크를 눌러 「SAFETY KOREA 19호(가을)」로 이동!
- Step2 상방을 사선상단에! 페이지를 캡처 후 본인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린다!
- Step3 이 게시물에 '참여 완료' 댓글을 달아주면 이벤트 참여 완료!

EVENT

「SAFETY KOREA 20호」 읽고 상품 받자

~18. 2. 28(수) 까지



추첨을 통해 5분께 문화상품권 1만원권을 드립니다!

- Step1 상단의 링크를 눌러 「SAFETY KOREA 20호(겨울)」로 이동!
- Step2 "죽은 겨울철, 시끄러운 위한 전기장판 안전 사용법, 하이시클 캡처 후 본인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린다!
- Step3 이 게시물에 '참여 완료' 댓글을 달아주면 이벤트 참여 완료!



콘텐츠 기획(안)

제품안전 관련
콘텐츠 세부 내용

온라인 콘텐츠
홍보 이벤트

SAFETY KOREA 계간지 마지막 페이지에 독자 의견 수렴 이벤트 진행

독자 의견 수렴 이벤트 진행

SAFETY KOREA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나 내용,
실생활에서 실시하고 있는 혹은 발견한 제품안전 사례를
E-mail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1등 문화상품권 5만원

2등 문화상품권 3만원

3등 문화상품권 1만원

✉ E-mail : Safety-korea@naver.com

[계간지 마지막 장에 게재되는 독자 의견 유도 포스터]


- 계간지 마지막 장에 게시해 독자가 페이지를 끝까지 넘기도록 유도
- 추첨을 통한 문화상품권 증정을 통해 계간지에 대한 독자 의견 수렴을 유도



SAFETY KOREA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SAFETY KOREA 에서 다루었으면하는 주제나 내용,
실생활에서 실시하고 있는 혹은 발견한 제품안전사례를
E-mail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1등 문화상품권 5만원

2등 문화상품권 3만원

3등 문화상품권 1만원



#응모방법
E-mail로 응모하기
safety-korea@naver.com

콘텐츠 기획(안)

제품안전 관련
콘텐츠 세부 내용

기사 및 연재칼럼
월별 **전문가** 칼럼 주제

월별 검색량 많은 키워드 및 발생 이슈를 반영한 주제로 칼럼을 작성하여 독자의 관심·흥미 유발

월	칼럼주제	부제
1월	전안법/KC인증	2017년 12월에 개정된 전안법 및 KC인증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법안 시행의 해결과제에 대해 설명
2월	국내 리콜/글로벌 리콜	국내외 리콜 사례를 분석하고 개인, 기업, 정부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
3월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인공지능, IoT 등 신사업에 대해 알아보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 예상되는 안전 문제와 대처방안 설명
4월	표준화	표준화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 생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표준화에 대해 소개
5월	케미컬포비아	화학제품에 대한 불안감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케미컬포비아의 원인과 대처방안 등을 설명하고 이와 관련한 국가기술표준원 활동을 소개
6월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재난안전제품에 대한 검증된 공급체계구축 및 시장판로 확대 촉진 등을 위한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에 대해 설명
7월	동아시아 리콜 비교	한국, 일본, 중국 3국의 리콜 사례와 대응 방법을 비교하고 국내 리콜 절차의 개선점에 대하여 설명
8월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사용법	화학제품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지만, 화학제품 없이 생활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언급하며 생활화학제품의 노출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
9월	제품안전과 기업의 책임	안전을 중요시 여기는 소비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제품안전은 기업의 이미지로 연결되는 추세. 이와 관련하여 제품안전은 기업의 경쟁력이며 기업이 책임져야 할 과제임을 설명
10월	제품 안전 사각지대	제품 안전 사각지대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논의
11월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의 개념과 사례에 대해 설명하고, 이와 관련한 국가기술표준원의 활동을 설명
12월	제조물 책임법	제조업자와 소비자의 입장에서 제조물 책임법에 대해 소개하고, 이와 관련한 국가기술표준원의 활동을 설명

콘텐츠 기획(안)

제품안전 관련
콘텐츠 세부 내용

기사 및 연재칼럼
월별 **전문가** 칼럼 예시

**제안사가 초고·교열교정을 전담해 독자가 내용을 쉽게 이해하게끔 하면서
제품안전 전문가의 첨삭 및 검수로 칼럼의 전문성 및 신뢰성 보완**

전안법과 KC인증, 대체 뭐길래?

작년 12월 29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대부분 ‘전안법’이라고 부르는 이 법안은 작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결국, 국회는 1년의 유예기간 동안 논란 규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그렇게 1년이 지나 전안법 시행일이 다가오자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전안법 폐지’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한 달 만에 참여자 20만 명을 돌파하며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이에 이번 개정에서 국회는 법 시행을 다시 6개월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KC 인증 고지와 의무 비치제도 완화와 관련된 세부 내용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대체 KC인증과 전안법이 대체 뭐길래 이렇게 난리가 난 걸까?

KC마크는 지식경제부·환경부·노동부·방송통신위원회·소방재청 등 5개 부처에서 발행하던 13개 법정 인증마크를 하나로 통합한 국가통합인증마크(Korea Certificate Mark)를 뜻한다. 과거에는 인증마크가 발급기관마다 달라 중복 인증을 받아야 하거나, 해외거래 시 상호 인증이 불가능 한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2009년 7월부터 지경부와 노동부의 10개 인증마크를 통합하여 KC마크를 출범했다. 결국, KC인증은 안전·환경·보건·품질 등 제품이 정해진 평가기준을 만족했고, 판매 및 사용이 가능하다는 걸 보증해주는 것이다.

KC인증은 제품 위해 수준에 따라 세 단계로 나뉜다. 이를 안전기준 준수 단계라고 한다. 첫 번째 ‘안전인증’은 구조·재질·사용방법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나 재산상 피해, 자연환경 훼손 우려가 큰 제품이다. 안전인증대상 제품의 경우 안전인증기관이 직접 제품검사 및 심사 후 인증서를 발급해준다. 발급 이후로도 정기적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 두 번째 ‘안전확인’은 안전인증 품목보다는 피해가 적은 물품이 해당한다. 이 경우 공장심사와 인증 발급 이후 정기검사는 생략할 수 있다. 마지막 ‘공급자적합성확인’은 위험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제조자나 수입자가 스스로, 혹은 제 3자에게 의뢰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면 된다. 검사 후 관련 서류는 최종 제조일로부터 5년간 비치해야 한다.

기존에는 전기용품과 어린이용품 중 안전인증과 안전확인 품목만 KC인증을 의무로 받아야 했다. 그러나 전안법이 시행되면 그 외 의류, 신발 등 39종의 생활용품의 제조·수입·판매·구매대행자까지 KC인증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KC인증을 받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다. 대기업이면 몰라도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는 ‘몰락’으로 이어질 정도로 부담스럽다. 또한, KC인증 비용만큼 의류·잡화 등 생활용품의 가격이 폭등해 소비자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KC마크 인증을 받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한 특례조항과 함께 안전기준 준수 단계를 기존 안전관리대상제품 관리체계에 새롭게 추가했다. 더불어 기존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비 안전기준을 준수할 경우 시험과 서류화 의무도 면제해준다. 그러나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최종판매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은 개정되지 않은 상태다. 그 때문에 소상공인의 불안감도 여전하다.

한편 전안법 시행으로 소비자가 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도 존재한다. 특히 생활용품 품질관리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사안이다.

의류만 해도 화학물질이 없는 옷은 없다는 말이 있다. 최근에는 정말 성인 의류에서 포름알데히드 등 3종에 대한 인체 유해성 분석이 80~90%나 된다는 조사 결과 나왔다. 포름알데히드는 미국 보건부가 공식 인정한 발암물질이다. 이외에도 섬유 염색에 사용되는 잠재적인 인체 발암물질 퀴놀린, 의복에 자외선 차단을 추가하는 벤조티아졸 및 벤조트리아졸 등 각종 화학물질이 의복 제작에 사용되고 있다.

전안법 시행까지 남은 6개월, 국회가 세부 내용을 조율하기까지 남은 시간이다. 전안법 시행으로 얻을 수 있는 소비자의 안전. 전안법 시행으로 위태로워지는 중소상공인의 생존. 어느 것 하나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그리고 포기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가 납득하고 따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국회의 주요 과제일 것이다.

III 콘텐츠 기획(안)

제품안전 관련
콘텐츠 세부 내용

기사 및 연재칼럼
제품안전 관련 기사 작성

월별 주요 사용제품에 대한 문제점과 올바른 선택·사용법 설명

월	소재	기사 주제	주제선정 이유
1월	충전식 휴대용 손난로	어쩌면 내 손안의 작은 지뢰	충전식 휴대용 손난로에 사용되는 중국제 리튬 이온 충전지의 위험성 설명 및 안전 인증 충전지 확인법 소개
2월	설날	즐거운 설 명절을 위한 조리기구 안전 사용법	세균 번식을 최소화하는 조리기구 사용법
3월	공기 청정기	공기 청정기만 있으면 우리집도 안전지대?	소홀한 공기 청정기 관리가 오히려 세균 번식을 시킴을 알리고 올바른 공기 청정기 사용법
4월	미세먼지 마스크	마스크만 쓰면 미세먼지 안녕? NO! 마스크 제대로 알고 쓰자!	봄철 다가오는 황사 및 미세먼지 대처방안을 설명하고, 외부 활동 시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5월	여행 캐리어	안전 인증 캐리어만 있으면 어디든 떠날 수 있어	캐리어 소재에 따른 특·장점 설명과 여행 내내 사고없이 사용할 수 있는 캐리어 선택법
6월	장마철	다가오는 장마철, 안전점검 사항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가정 내에서 실시할 수 있는 장마철 안전점검 사항
7월	물놀이 용품	신나는 여름철 물놀이, 당신의 물놀이 용품은 안전한가요?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용품 선택법과 관리법
8월	냉방기기	여름을 더욱 시원하게 보내기 위한 올바른 냉방기기 안전 수칙	안전한 냉방기기 사용법과 실외기 화재 예방법
9월	추석	추석 황금연휴, 전기 안전 5계명	연휴기간 중 전기화재 발생현황 소개 및 장기간 집을 비우기 전 실행해야 할 전기안전 5계명
10월	아웃도어 제품	가을 산행을 책임질 아웃도어 장비, 안전 인증 제품 맞나요?	아웃도어 구입 시 확인해야 할 안전 인증 마크 설명과 사고 예방을 돕는 안전한 아웃도어 장비 사용법
11월	전기장판	이불 밖은 위험해! 안전한 전기장판 한파를 부탁해~	세탁하기 어려운 전기장판 청결 유지 방법 및 화재 예방 수칙
12월	가습기	밀폐된 겨울, 세균 가득한 가습기가 공기를 오염시킨다!	수증기를 통한 세균 번식 과정을 설명하고, 청결한 가습기 유지법 소개

콘텐츠 기획(안)

제품안전 관련
콘텐츠 세부 내용

기사 및 연재칼럼
제품안전 관련 기사안

독자의 생활·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된 제품을 주제로 기사를 작성해
제품안전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이고 안전하게 제품을 사용하도록 함

이불 밖은 위험해! 안전한 전기장판 한파를 부탁해~

전기장판 청결 유지 방법 및 화재 예방 수칙

올해도 북극 한파가 연일 지속되고 있다. 매년 추워지는 겨울 날씨로 인해 전기장판을 사용하는 가정이 늘어나는 추세다. 동시에 전기장판으로 인한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의하면 2011년 전기장판 안전사고 접수는 259건인데 비해 2014년은 464건으로 200건 가량 증가했다. 더욱이 2015년과 2016년 2년 동안 접수된 전기장판 관련 안전사고는 1,367건으로, 그 중 61%가 화재 및 과열로 인한 사고이다.

건조한 겨울철에는 작은 불씨라도 자칫하면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특히 전기장판은 사용 전 전열부의 먼지를 제거하고 제품 훼손·이상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열선이 끊어지지 않았는지, 온도조절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반드시 확인해봐야 한다.

전기장판을 사용할 때는 무거운 물체에 눌리거나 접히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이 경우 열선이 끊어지거나 피복이 벗겨져 합선이

일어날 수 있다. 같은 이유로 전기장판을 보관할 때도 접지 않고 말아서 보관해야 한다. 또한 라텍스나 두꺼운 이불과 함께 사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보온성이 좋은 라텍스 재질의 침구류는 열축적율이 높아 장시간 전기장판을 사용하면 화재 위험이 있다.

전기장판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꼭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 전선이나 콘센트 주변에 먼지나 화기 물품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미세한 불꽃으로도 불이 붙어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내가 사용하는 전기장판이 정말 안전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전기 매트 같은 전기용품은 ‘안전인증마크(KC마크)’가 있는 제품만 사용해야 한다. KC마크가 있더라도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리콜명령을 받은 제품일 수 있다. 이 경우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나 리콜제품 알리미 모바일 앱을 통해 ‘리콜명령’을 받은 제품이 아닌지도 확인해봐야 한다.

콘텐츠 기획(안)

제품안전 관련
콘텐츠 세부 내용

기사 및 연재칼럼
위해제품 관련 기사 집필

기사 주제에 맞는 수치, 그래프, 표 등 시각화 자료를 첨부하여
위해제품의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신뢰성을 제고

월	소재	기사 주제	주제선정 이유
1월	화장품	아름다워지기 위해 산 화장품, 알고 보면 내 피부 마치는 지름길	화장품에 포함된 유해 성분과 부작용 설명, 착한 성분 화장품을 고르는 방법
2월	섬유유연제	위해우려제품 섬유유연제, 그렇다고 안 쓸 수도 없고...	섬유유연제의 품질 및 안정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제공
3월	냉장고	냉장고, 음식 말고 세균도 같이 보관하세요?	간과하기 쉬운 냉장고 속 저온균 세균에 대한 소개 및 예방법 설명
4월	스마트폰	스마트폰, 화장실 번기보다 10배 더럽다.	스마트폰과 화장실 번기의 세균 검출량을 수치화하여 비교하고 스마트폰 청결 유지를 위한 5계명 소개
5월	어린이 학용품	유해성분 어린이 학용품도 리콜 대상	어린이 학용품 속 유해성분 종류 소개 및 구입 후 알았을 때의 대응 방법 설명
6월	생활화학제품	생활화학제품 구매 시 체크 리스트!	대부분의 제품에 포함되어 있기에 피할 수 없는 화학 제품, 노출은 최소화하는 방안 설명
7월	고무풍선	고무풍선 입으로 불지 마세요, 시중 판매 제품 기준치 초과	야외활동이 많은 7월 공공장소에서 자주 접하는 고무풍선에 대한 경고
8월	향초	향초의 두 얼굴	집안 냄새를 제거하거나 심신 안정을 위해 사용하는 향초가 실내를 오염시키는 원인 중 하나
9월	애완견용 탈취제	가습기 살균제 유해 성분, 반려동물까지 위협한다.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반려동물용 탈취제에서도 발견
10월	전자담배	세상에 좋은 담배는 없다.	전자담배의 유해성
11월	어린이 장난감	우리 아이 장난감 구매 시 체크 리스트	아이 장난감 구매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유해 성분 정보
12월	표백제	천연세제 4종 활용법	시중 판매되는 표백제의 성분과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고, 표백제를 대체할 수 있는 천연세제 4종 소개

콘텐츠 기획(안)

제품안전 관련
콘텐츠 세부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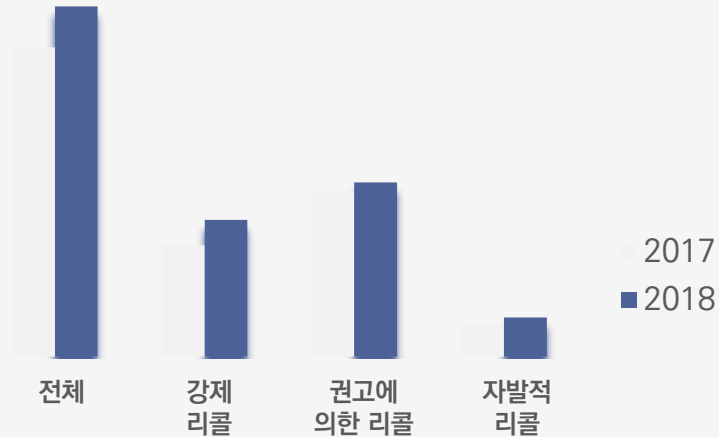
기사 및 연재칼럼
위해제품 관련 기사안

제품안전정보센터의 리콜 및 위해정보 통계를 바탕으로
시각화 자료를 첨부해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사 작성

우리아이 장난감, 아무거나 사주실 건가요?

어린이제품, 국내 어린이제품 리콜 점진적 증가

2018년 1/4분기 국내 리콜건수는 총 205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1/4분기 리콜건수는 181건에 비해 1.13% 증가한 수치다. 권고에 의한 리콜은 102건, 강제 리콜은 80건, 자발적 리콜은 23건으로 모두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



〈그림1〉은 세부분류별 리콜건수를 나타낸 것이다. 어린이 제품이 114건, 5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전기용품이 65건, 공산품이 26건으로 많았다. 어린이제품의 경우 동기 리콜건수 대비 1.18% 많아 세 품목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세부 품목으로는 기타 어린이용품 57건(50%), 아동의류 38건(33%), 완구 19건(17%) 순이었다.

2018년 1/4분기 국내 리콜건수는 20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인 181건에 비해 1.13%증가했다. 특히 전체 리콜 중 어린이제품이 114건(56%)으로 가장 높은 가운데, 다음으로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이 많았다. 올해에도 작년과 같이 '표시불량'에 의한 리콜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림2〉는 위해유형별 리콜건수로 작년 4/4분기에 이어 올해 1/4분기에도 표시불량이 105건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화학적 작용 34건, 제조 불량 20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표시불량은 해마다 상위권을 차지하는 위해유형으로 제조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그림3〉은 제조국별 리콜건수이다. 리콜건수가 가장 많은 것은 한국산 제품으로 87건이었다. 다음으로 중국산 제품이 84건, 미국산 제품 13건, 기타 21건으로 조사됐다.

현재 제품안전정보센터는 분기별 리콜통계를 분석해 국내 리콜현황과 추이를 파악하고 있다. 또한 리콜현황, 분석 자료 등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전체 공개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와 기업이 위해제품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제품안전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쓰고 있다.

콘텐츠 기획(안)

제품안전 관련
콘텐츠 세부 내용

기사 및 연재칼럼
행사 취재 관련 기사안

제품안전 관련 행사 취재 기사 집필로 제품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제품안전정책국 활동 홍보

2018 제품안전혁신 포럼 개최

제품안전혁신 포럼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제품안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이번 포럼에서는 제품안전 관리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하고 한국제품안전협회가 주관하는 ‘2018 제품안전혁신 포럼’이 지난 11월 22일 서울 ABC호텔에서 개최됐다. 제품안전혁신 포럼은 소비자단체, 기업, 학계, 인증기관,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제품안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자리이다.

2014년 첫 개최 이후 5회를 맞은 이번 포럼에는 제품안전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해 ‘제품안전 관리를 위해 소비자·기업·정부의 협동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포럼은 1부 총회와 2부 세미나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 총회에서는 제품안전정책 동향 및 분과별 활동성과에 대해 국표원 제품안전정책과장, 제도·기술분과 위원장, 제품안전법령연구회 위원이 발표했다. 이후 제품안전관리제도 개선 및 발굴에 대한 간담회가 진행됐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도입된 ‘국민 참여형 안전성조사 공모제’에 대한 현황·특징 및 개선점에 대해 논의했다.

2부 세미나는 제품안전정책 및 분과 세션과 소비자 및 기업 세션으로 나뉘어 발표를 진행했다. 제품안전정책 및 분과 세션에서는 ▲국표원 제품안전정책과 김가나 연구관 ▲제도분과 이다라 위원 ▲기술분과 박마바 위원이 발표자로 나섰다. 소비자 및 기업 세션에서는 ▲한국소비자교육원 김사아 위원 ▲ABC기업 ▲DEF기업이 발표했다.

허남용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개회식에서 “2018 제품안전혁신 포럼은 전년도 보다 더 많은 소비자분들이 찾아주셨다”며 “국가기술표준원은 제품안전 관리에 소비자의 참여를 확대해 실생활에 적합한 방식으로 소비자 안전확보를 위해 힘 쓸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오늘 포럼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 제품안전 정책 및 관련 법령 개정안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명확한 교열 교정 가이드라인으로 어법에 맞는 말을 사용하고 저작물에 **통일성과 신뢰성 제고**

1. 맞춤법 및 문장서술 방법

- 1) 한글 및 외래어, 로마자 표기는 국립국어원(<http://www.korean.go.kr>) ‘한국 어문 규정’에 따른다.
- 2) 쉬운 용어 및 문장을 사용한다.
 - 어렵거나 한문 투의 용어는 문장에서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외래어 서술 방식
 - 외래어로 된 단어 중 우리말이 있는 것은 되도록 우리말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오일이 유출되어→기름이 유출되어
 - 본문에서 쓰이는 영어 표기는 약어를 사용하지 않고 공식 명칭 또는 전체 단어를 기재한다. 예) LA→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 4) 연대와 년·월·일은 생략 표시를 하지 않는다. 예) 93년 7월에 → 1993년 7월에, 2015~17년 사이→2015~2017년 사이

2. 띄어쓰기 규정

- 1) 띄어쓰기는 기본적으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우리말샘』(<http://opendict.korean.go.kr>)의 띄어쓰기에 따른다.
- 2)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나 붙여쓰기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붙여 쓴다. 예) 우리-나라 → 우리나라, 여성^단체→여성단체
- 3) 성과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 띄어 쓸 수 있다.
 - 예) 이순신, 유관순, 김구, 남궁민수→남궁 민수, 황보라→황보 라
- 4) 학교, 기관, 단체, 시설 명칭은 의미 단위 별로 띄어 쓴다. ‘단위’란 고유명사로, 독립적인 지시 대상으로 파악되는 것을 말한다.
 - 예)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 한국방송공사 경영기획본부 경영평가실, 인천역
- 5) 관직명은 붙여 쓴다. 예) 경기도 교육감→경기도교육감
- 6) 자연지명, 행정지명, 도로명은 붙여 쓴다. 예) 제주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나운1동, 서해안고속도로, 국도21호선, 주유소사거리
- 7) 법령이나 조례는 법제처 공식 명칭(국가법령정보센터) 띄어쓰기에 따른다. 예) 「고등교육법」, 「과학교육 진흥법」, 「부천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 8) 사건, 행사의 명칭은 붙여쓴다. 다만 특정 회자, 연도, 부속 대회 경우에는 띄어 쓴다.
 - 예) 6.25전쟁, 대한민국음악제, 제1차 세계대전, 2012 하동북천코스모스메밀꽃축제, 세계마칭쇼밴드챔피언십 제주대회
- 9) 문서, 문헌명은 원 자료명 그대로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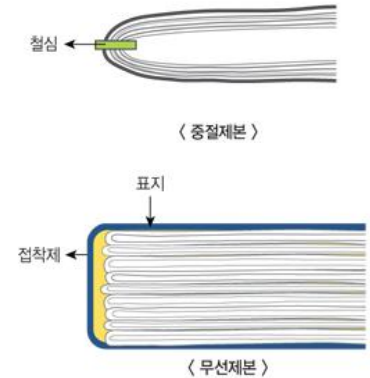
Q&A

Q 왜 제안요청서에 있던 제본 방식 중철을 무선제본 방식으로 바꿨나요?

약 50페이지의 내지일 경우 접지를 하여 4쪽을 순서대로 이어 가운데 철심을 박아 제본하는 중철 제본방식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제로도 중철제본 방식은 카탈로그, 팸플릿 등 두껍지 않은 제본에 많이 쓰입니다.

무선제본의 경우 빠르고, 경제적인 제본방식으로 가장 일반적인 단행본 제본 형식입니다. 기본 잡지 등 간행물도 대부분 무선제본으로 진행합니다.



Q 책자 인쇄 방식은 어떤 건가요?

현재 제안한 견적이 기준으로는 **일반인쇄** 방식입니다.

고급 인쇄방식으로는 UV인쇄 방식이 있는데, 고급지일 수록 잉크가 마르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입니다.

몽블랑의 경우 고급지에 속하기 때문에 비교적 잉크 마르는 속도가 느려

사실 UV인쇄로 진행되어야 가장 깔끔하고 빠르게 마릅니다.

다만, 단가가 높기 때문에 현재 책자 기준에서 인쇄방식만 UV인쇄로 바꿀 경우 **약 1.2배 이상** 높아집니다.

※UV인쇄_자외선(Ultra-Violet)

UV잉크를 사용하여 자외선을 쬐어 경화반을 일으켜 순간적으로 잉크를 건조시키는 것.

잉크 묻어남이 없어 바로 가공하기에 편리하며, 가공시간이 단축, 출고가 일반인쇄 비해 빠름, 다양한 재질에 인쇄가능